

전북대 권대규 교수, 재활복지공학회 9대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권대규 교수(공대 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사)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제9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국재활복지공학회(RESKO)는 한국 장애인재활협회가 주축이 돼 세계적으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재활관련 학회인 RESNA를 모티브로 2007년 창립한 재활 및 복지공학 관련 국내 최대 학회다.

창립 이후 연 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권대규 교수는 "회원들과의 강력한 협력과 최신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라동운)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강사봉사회 라동운 회장은 "응급처치강사봉사회가 힘을 모아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을 널리 보급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응급처치강사봉사회는 지난해 학생·직장인을 위한 야간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실시, 베이비페어 영유아 심폐소생술 시연, 지역행사 심폐소생술 교육 봉사 등 도민 대상 응급처치법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1만852명의 안전교육 수료자를 배출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경찰, 스미싱 사기 예방 홍보활동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도 통지구대(대장 황인용)는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폰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을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최근 건강검진 사칭이나 택배 문자, 부고장을 빙자해 악용하는 스미싱 피해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문자로 의심해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알림, 택배 배송조회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에 보안 앱(시티즌 코난)을 직접 설치해주고, 사용 방법과 스미싱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읍, 저소득층 초·중·고생 꿈나무 용돈 지원

부안읍은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12명에게 꿈나무 희망드림 용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꿈나무 희망드림 용돈 지원사업은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25일 학생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자로 한가구에서 고학년에 재학중인 자녀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생에게 월 1만원, 중학생에게 월 2만원, 고등학교생에게는 월 3만원씩 1월 25일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지원을 할 예정이며, 6월에 성과를 분석한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알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동문대상 시상식=일시: 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모교 진수당 1층 기안홀

‘전북국제태권도고교 설립에 온 힘’

무주교육지원청, 무주태권도협회와 협약 체결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교육지원청은 10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고 무주의 태권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주군태권도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무주군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을 통해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군태권도협회는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태권도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는 "협약을 통해 무주의 청소년들은 태권도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은 약속했다. 김승기 교육장은 "앞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은 무주의 열린인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태권도 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 성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우정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우정회(회장 이강석)는 10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후학들이 힘찬 기운을 받아 청룡처럼 굳건하게 정진하도록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진안우정회 원년은 1995년도에 진안중학교 35회 동창생 100여명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단체로 당시 처음 명칭은 진안중학교 35회회로 시작하였다. 삼오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 나눔 실천, 이웃사랑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힘찬 출발을 했다.

특히 삼오회 회원 구성원은 농부, 지역업,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진안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고향을 지키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 모임이다.

삼오회 친구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결코 마음과 정신은 어리지 않는 지역을 지키는 역군으로 성장하여 3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사회적으로 중견의 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있다.

삼오회는 변화의 흐름속에 지난 2015년도에 명칭을 진안우정회로 개명하고 또래친구로 구성원의 폭을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강석 회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고자 시작된



포래도움이 오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협동과 이해심으로 존속되어 올 수 있었다"며 "우정회는 지속적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참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수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힘들게 살아온 후배들이 부모자식 챙기기도 힘든 세상인데 지역사회 후학들을 위해 금쪽같은 귀한 성금을 장학재단에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생활관에 카페테리아 개소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캠퍼스 생활관인 웅비관에 학생들을 위한 카페테리아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특성화캠퍼스 생활관(웅비관, 청운관)에는 전용 식당이 없고, 생활관 주변에도 편의시설이 적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카페테리아 신설로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특성화캠퍼스 웅비관 1층에 자리한 카페테리아는 깔끔하고 차분한 엔틱 분위기로 조성, 카페테리아 겸 스터디카페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에는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전기 인덕션 등 간단한 조리시설을 구비해 학생들이 직접 요리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4인용 테이블뿐만 아니라 1인석도 별도로 마련해 혼자 방문하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특성화캠퍼스는 전주 캠퍼스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이번 특성화 캠퍼스 생활관 카페테리아 신설이 환경생명지원대학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식생활 복지 및 캠퍼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은성 기자



남원 주천면, '우리동네 효자손' 등 새롭게 시작

남원시 주천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하여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손'을 새롭게 시작했다.

여성 의용소방대는 주천면 각 마을을 찾아가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고효율 엘디(LED) 등 교체, 노후 전기선 정리, 고장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복지팀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

김민주 주천면장은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매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남·여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단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적삼남성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10일 적삼남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현석 회장은 "지역 안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로서 우리 지역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뒷받침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 마음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삼남성의용소방대는 20명의 대원들이 소방서와 협업체 화재 진화 및 수해복구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 여성단체 신년회, 소통·화합의 시간 가져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화자)가 10일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여성단체 신년회를 개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내 여성지도자와 지역 인사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여성현장 낭독, 신년사, 축하, 축하 띄우기,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고창군 여성단체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여성현장 낭독을 통해 고창군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화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고창군이 되도록 새해에도 우리 여성단체들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새해에도 여성단체의 발전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고창군도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산동면 등 남원 곳곳 사랑나눔 잇따라

남원시가 갑진년인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동면 동남원새마을금고(이사장 소인수)가 면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100만원과 초도리쌀을 전달했으며, 이현재 면장은 "면민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든든한 기부가 관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노안동에서는 뉴마티타운(대표 김경주)이 지난 8일,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및 화장지 각각 30상자 (70만5천원 상당)를 노안동에 기탁 했다고 전했다. 임점숙 노안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월면에서는 새농민회(회장 장영두)에서 지난 8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 100kg을 기부하며, 김성호 부회장은 "기탁한 성금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고 돌보고 나누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반기 행정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이 1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인턴사업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장했으며, 생치, 동계, 복흥, 구림면처럼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우선 선발 범위도 확대했다.

접수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67명이 접수되었고, 공개 추첨을 통해 저소득층과 원거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선발 6명, 일반선발 19명을 포함하여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다음달 2까지 군청 각 부서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부터는 행정인턴 참여 대상자를 일반청년들까지 확대했다"며 "4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내용의 행정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